

스마트 폰 SNS 설문조사 통해 알아본 여성의 성 만족도에 관한 헬스케어 연구

문중훈* · 허성진** · 나창호*** · 김성현**** · 강소라***** · 김희진*****

Healthcare Research for Sexual Satisfaction of Women Using Questionnaire of Smartphone SNS

Jong-Hoon Moon* · Sung-Jin Heo** · Chang-Ho Na*** · Chang-Ho Na**** · So-La Kang***** · Hee-Jin Kim*****

요약

본 연구는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성경험, 선호하는 음경 유형,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성기능 및 성 선호도에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72명의 성인 여성이 본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응답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불완전한 응답 및 성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제외한 54건이 분석되었다. 수집한 모든 자료는 SPSS 22를 이용하여 독립 t 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혼은 미혼보다 성교빈도와 성기능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 경제수준이 높은 자 또는 보통인 자는 낮은 자보다 주관적 성경험, 성기능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는 낮은 자보다 성교 빈도에서 더 높았으며, 음경의 길이 및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p<.05$). 귀두를 더 선호하는 자는 음경과 귀두의 굵기가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보다 주관적 성경험이 더 많았으며, 음경의 굵기와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p<.05$).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성교 빈도에서 더 낮았으며, 음경의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p<.05$).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성기능 및 성 선호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의 성기능 재활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sexual function and sexual pre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men, sexual experience, preference penile type, and sexual dysfunction. 72 adult women responded to the survey. 54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respondents who did have incomplete response and no sexual experience. Al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and chi-square test using SPSS 22. In results, Marrie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intercourse frequency and sexual function than unmarried($p<.05$). In economic status, high or middl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function than the low($p<.05$). In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high was higher in intercourse frequency than the low, and penile length and type were important($p<.05$). preference of glans> peni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than preference of glans = penis, and importance of penile girth and size($p<.05$). In sexual function, normal function was lower in intercourse frequency than dysfunction, and penile length was not considered significant($p<.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sexual function and sexual preference according to various causes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for sexual function rehabilitation of women.

키워드

Healthcare, Penis, Sexual Function, Women, Smartphone
헬스케어, 음경, 성기능, 여성, 스마트 폰

* 인천사랑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gamett231@naver.com)

***** 교신저자 : 인천 글로리 재활병원 작업치료실
(gamett231@naver.com)

• 접수일 : 2017. 07. 06

• 수정완료일 : 2017. 08. 13

• 게재확정일 : 2017. 10. 18

• Received : July 06, 2017, Revised : Aug 13, 2017, Accepted : Oct 18, 2017

• Corresponding Author : Hee-Jin Kim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lory Rehabilitation Hospital

Email : d-angel21@hanmail.net

1. 서론

u-헬스케어(u-healthcare)란 보건의료와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건강 정보를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수집, 처리,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헬스케어의 영역은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들이 대두되고 있다[2].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요인으로 매우 다양하다[3]. 이중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성(sex)은 삶의 질과 높은 관련이 있다[4]. 그러나 성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은밀한 부분이므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서양과 비교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성에 대한 언급이 더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5].

남녀 사이에 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관한 신념, 가치관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성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6]. 정신분석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Sigmund Freud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몇 가지 기본적 가정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그 중 하나인 성욕(desire)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이자 무의식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였다[6]. 정신분석이론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 출생 직후부터 성기기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Freud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부위가 변하며, 특정 시기에서 욕구충족 경험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7].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성격의 발달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남근기는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로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부위가 항문에서 성기(penis)로 변하게 된다고 말한다[8]. 남아의 경우 자신의 성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여아는 남근에 해당하는 음핵을 통해 쾌감을 느끼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때 여아는 남아의 남근을 부러워하게 되며, 열등감 및 경쟁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쟁심은 무의식적 남근 선망(penis envy)이라고 할 수 있다[9]. Freud는 남근기가 성격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아의 경우 엘렉트라 갈등(Electra complex)을 겪게 된다[10]. 엘렉트라 갈등은 여아가 아버지의 애정을

독점하려고 하며, 어머니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내적 갈등을 통해 성역할을 학습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선망하게 되면, 그 특성에도 무의식적 관심을 가질 수 있다[9,10].

남성이 남들보다 큰 성기를 갖고자 하는 욕심은 나라를 막론하고 나타난다. Lever 등[11]은 대다수의 남성이 그들의 음경 길이, 둘레와 같은 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성기가 작으면 파트너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작 남성의 성기 크기에 대한 여성의 생각에 대해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Franken 등[12]의 연구에서 평균나이 30세 여성에게 "성기의 크기, 길이, 둘레가 중요한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참여한 여성의 21%만이 길이를 중요시 하였으며, 33%는 둘레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국외에서는 성기의 특성에 대한 여성의 생각을 보고한 바 있었으나[12], 국내에서 이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Wessells 등[13]은 미국남성의 음경 길이는 평균 8.8cm라고 보고하였다. Park 등[14]은 한국 남성 309명을 대상으로 음경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7.76±1.19cm로 나타났다. 위 두 연구의 결과는 미국인보다 한국인의 음경 길이가 1cm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미국인과 한국인의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국 여성에게 남성의 성기의 특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13,14].

미국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 제 4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 : DSM-IV)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 성기능 장애(female sexual dysfunction)는 성 반응 주기에 따른 정신 생리적 변화의 장애, 또는 성교 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하였다[15]. 이러한 장애가 있는 여성은 심한 고통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16].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Min [17]은 여성의 26.1%가 절정감 장애(orgasmic disorder)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Sohn [18]은 연구에 참여한 39.8%의 여성이 성생활에 어려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해외에서 보고한 Laumann 등[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42%가 한 가지 이상의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적 각성(arousal)의 장애

는 삶 만족도와 대인관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Lee와 Kim [19]은 372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능장애의 관련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이, 직업, 결혼기간, 교육수준, 종교, 소득수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폐경의 유무, 임신 및 출산 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성기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관련된 설문은 참여자를 직접 모집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한 인터넷 설문조사 연구도 보고되었다[20]. 스마트 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21]. 이러한 스마트 폰의 이점은 보건의료영역에서도 평가와 치료에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22,23]. 또한, 스마트 폰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간편히 설문에 응답할 수 있고 다소 민감한 질문이라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롭다[20].

선행 연구에서 성기능 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보고되었음에도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16-18]. 이전 연구에서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성기능 장애의 관련요인을 분석하였지만 미혼과 기혼에 대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19], 성경험 수준에 따른 선호하는 음경의 특성 및 성기능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 음경의 유형에 따른 여성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20].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성경험, 선호하는 음경 유형,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성기능 및 성 선호도에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및 성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경험에 따른 성기능 및 성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선호한 음경 유형에 따른 성기능 및 성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성기능, 성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의 설문을 통하여 성인 여성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설문은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을 명목변수(nominal variables)로 질문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응답한 자료가 연구목적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모든 응답자는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였다.

2.2 평가측정

(1) 성경험(Sexual Experience)

본 연구에서 성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적 성경험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난 한달 동안 성교 빈도(intercourse frequency)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달에 1회’, ‘한 달에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7회’로 구분하여 질의하였다[12]. 통계분석에는 ‘한 달에 2~3회 이하’와 ‘주 1회 이상’으로 이분형 변수로 코딩(coding)하여 분석하였다.

(2) 성 선호도(Sexual Preference)와 적절한 성교 시간

본 연구에서 성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음경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음경의 선호도는 길이(length), 둘레(girth), 크기(size)[12]와 음경 유형(type)으로 구분하였다.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에 대한 선호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교 시 음경의 OO가 성생활 만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에 대한 응답 항목은 4개의 문항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통계분석에서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에 대한 응답을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중요하다’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중요하지 않다”로 이분형의 명목변수로 코딩하였다. 음경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경의 유형을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귀두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 ‘귀두와 음경의 굵기가 비슷한 유형’, ‘음경이 귀두보다 더 굵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음경 유형에 대한 선호도 설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어떠한 음경의 유형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들에게 적절한 성교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삽입 후, 성교의 시간은 얼마 정도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12].

(3) 여성 성기능 지수-5(Female Sexual Function Index-5 : FSFI-5)

여성 성기능 지수-5는 응답자의 성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19문항의 여성 성기능 지수(Female Sexual Function Index : FSFI)를 5개 항목으로 축약한 도구이다[24]. 여성 성기능 지수-5는 항목 당 1~5점이며, 성행위가 없었으면 0점으로 채점한다. 항목은 성욕, 성적 각성(arousal), 절운활작용(lubrication), 절정감(orgasm), 성관계 만족도(satisfaction)로 총 5 항목의 총합으로 성기능을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ung [25]의 연구에서 확인한 성기능 장애를 구분하는 절단치 값(cut off value)은 18점이다. Chung [25]의 연구에서 여성 성기능 지수-5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7$ 로 보고하였다.

2.3 절차

인터넷 및 스마트폰 SNS의 설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SNS와 이메일을 통하여 205건의 설문을 20~30대 성인 여성에게 전송하였다. 205건에 대한 응답자는 72명이었으며, 133명은 응답이 없었다. 응답한 72명 중 누락 또는 불완전한 응답이 있었던 경우(15건), 성경험이 없었던 자(2건)가 분석에서 배제되었으며, 응답한 내용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1건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8건의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총 54건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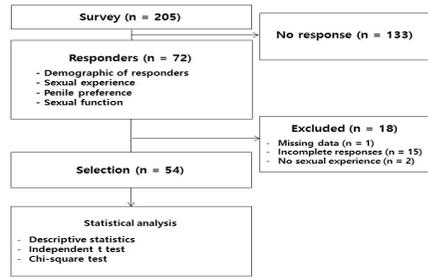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절차
Fig. 1 Procedure of this study

2.4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2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성 특성과 관련된 모든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는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결혼유무, 경제적 상태, 주관적 성경험, 선호 음경 유형,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또는 성기능 및 성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독립 t 검정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

$$T = \frac{(\bar{X} - \bar{Y}) - (\mu_1 - \mu_2)}{\sqrt{\frac{1}{n_1} + \frac{1}{n_2}}} \quad (1)$$

두 표본평균의 차 $\bar{X} - \bar{Y}$ 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오차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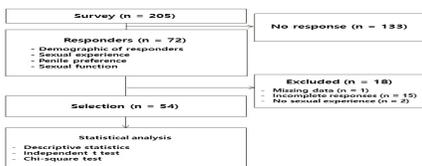
평균: $E(\bar{X} - \bar{Y}) = \mu_1 - \mu_2$

분산: $\text{Var}(\bar{X} - \bar{Y}) = \frac{\eta_1^2}{n_1} + \frac{\eta_1^2}{n_2} = \eta^2 \left(\frac{1}{n_1} + \frac{1}{n_2} \right)$

표준오차: $\text{s.e}(\bar{X} - \bar{Y}) = \eta \sqrt{\frac{1}{n_1} + \frac{1}{n_2}}$

위에서 η^2 는 $\eta^2 = \eta_1^2 = \eta_2^2$ 으로 공통분산이라 하며, η 는 공통표준편차이다.

자료의 유의수준 $\alpha = .05$ 로 하였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성 특성

54명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나이는 20대가 22명(40.7%)이었으며, 30대가 32명(59.3%)이었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36명(66.7%), 기혼이 18명(33.3%)이었다. 경제적 상태는 '높다 또는 중간'이 44명(81.5%), '낮다'가 10명(18.5%)이었다. 종교 유무는 '있다'가 17명(31.5%), '없다'가 37명(68.5%)이었다. 응답자의 성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 성 경험은 '낮다'가 10명(18.5%), '중간'이 35명(64.8%), '높다'가 9명(16.7%)이었다. 성교 빈도는 '시도하지 않음'이 3명(5.6%), '한 달에 2~3회 이하'가 23명(42.6%), '주 1회 이상'이 28명(51.9%)이었다. 음경 선호도는 길이가 '중요하다'가 28명(51.9%), '중요하지 않

다'가 26명(48.1%)이었다. 둘레가 '중요하다'가 35명(64.8%), '중요하지 않다'가 19명(35.2%)이었다. 크기가 '중요하다'가 37명(70.4%), '중요하지 않다'가 16명(29.6%)이었다. 음경 유형의 선호도는 '귀두가 음경보다 굵은 유형을 선호'가 23명(42.6%), '귀두와 음경의 굵기가 비슷한 유형을 선호'가 28명(51.9%), '음경이 귀두보다 더 굵은 유형을 선호'가 3명(5.6%)이었다. 삽입 후 적절한 성교 시간은 '1~2분'은 없었으며, 3~5분은 2명(3.7%), '5~10분'이 19명(35.2%), '10~30분'이 20명(37%), '30분 이상'이 8명(14.8%)이었으며, '중요하지 않다'가 5명(9.3%)이었다. 응답자의 성기능 총점은 12.81 ± 4.29 점 이었으며, 성욕은 2.89 ± 0.90 점, 성적 각성은 2.65 ± 1.10 점, 질 윤활작용은 1.94 ± 1.09 점, 절정 감은 2.70 ± 1.22 점, 성관계 만족도는 2.63 ± 0.88 점 이었다[표 1].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성 특성
Table 1. Sexual characteristic and Demographic of responders

		Responders (n=54)	
		n(%)	mean±SD
Age (years)	20~29	22(40.7)	
	30~39	32(59.3)	
Marital status	Unmarried	36(66.7)	
	Married	18(33.3)	
Economic status	High or middle	44(81.5)	
	Low	10(18.5)	
Religion	Yes	17(31.5)	
	No	37(68.5)	
Sexual experience	Level of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Low	10(18.5)
		Middle	35(64.8)
		High	9(16.7)
Intercourse frequency	No try	3(5.6)	
		≤ 2~3 times a month	23(42.6)
	≥ 1 time a week	28(51.9)	
Penile Preference	Length	Important	28(51.9)
		No important	26(48.1)
	Girth	Important	35(64.8)
	No important	19(35.2)	
	Size	Important	37(70.4)
	No important	16(29.6)	
Penile type preference	Glans > penis, preference	23(42.6)	
	Glans ≐ penis, preference	28(51.9)	
	Glans < penis, preference	3(5.6)	

Appropriate intercourse time	1~2 minutes	0
	3~5 minutes	2(3.7)
	5~10 minutes	19(35.2)
	10~30 minutes	20(37.0)
	≥ 30 minutes	8(14.8)
	Does not matter	5(9.3)
Sexual function	Total score	12.81±4.29
	Desire	2.89±0.90
	Arousal	2.65±1.10
	Lubrication	1.94±1.09
	Orgasm	2.70±1.22
	Satisfaction	2.63±0.88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2) 결혼 유무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기혼은 미혼과 비교하여 성교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주관적 성경험,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 유형의 선호도, 적절한 성교 시간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 사이에 성기능 비교에서 총 점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p<.05). 하위항목 비교에서 절정감은 기혼이 미혼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p<.05), 성욕, 성적 각성, 질 윤활작용, 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표 2. 결혼 유무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Table 2. Comparisons of sexual function and pre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Unmarried (n=36)	Married (n=18)	p	
Sexual experience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Low	9(25.0)	1(5.6)	.207	
		Middle	21(58.3)	14(77.8)		
		High	6(16.7)	3(16.7)		
	Intercourse frequency	No try	1(2.8)	2(11.1)	.019*	
≤ 2~3 times a month		20(55.6)	3(16.7)			
Penile Preference	Length	≥ 1 time a week	15(41.7)	13(72.2)	.847	
		Important	19(52.8)	9(50.0)		
	No important	17(47.2)	9(50.0)			
	Girth	Important	24(66.7)	11(61.1)		.687
		No important	12(33.3)	7(38.9)		
Size	Important	25(69.4)	13(72.2)	.833		
	No important	11(30.6)	5(27.8)			
Penile type preference	Glans > penis, preference		14(38.9)	9(50.0)	.393	
	Glans ÷ penis, preference		19(52.8)	9(50.0)		
	Glans < penis, preference		3(8.3)	0		
Appropriate intercourse time	1~2 minutes		0	0	.587	
	3~5 minutes		2(5.6)	0		
	5~10 minutes		12(33.3)	7(38.9)		
	10~30 minutes		15(41.7)	5(27.8)		
	≥ 30 minutes		4(11.1)	2(22.2)		

	Does not matter	3(8.3)	2(11.1)	
Sexual function	Total score	13.61±4.71	11.22±2.76	.023*
	Desire	2.94±1.01	2.78±0.65	.528
	Arousal	2.83±1.11	2.28±1.02	.080
	Lubrication	2.08±1.20	1.67±0.77	.188
	Orgasm	3.03±1.13	2.06±1.16	.005**
	Satisfaction	2.72±1.00	2.44±0.51	.184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 경제적 상태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중간인 자는 낮은 자와 비교하여 주관적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교 빈도,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 유형의 선호도, 적절한 성교 시간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 사이에 성기능 비교에서

총 점수는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중간인 자가 낮은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p<.05). 하위항목 비교에서 성적 각성, 질 윤활작용, 성관계 만족도는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중간인 자가 낮은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p<.05), 성욕, 절정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3].

표 3. 경제적 상태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sexual function and preference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Low (n=10)	High or middle (n=44)	p
Sexual experience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Low	5(50.0)	5(11.4)	.011*
		Middle	5(50.0)	30(68.2)	
		High	0	9(20.5)	
	Intercourse frequency	No try	0	3(6.8)	.654
≤ 2~3 times a month		5(50.0)	18(40.9)		
Penile Preference	Length	≥ 1 time a week	5(50.0)	23(52.3)	.125
		Important	3(30.0)	25(56.8)	
	Girth	No important	7(70.0)	19(43.2)	.277
		Important	5(50.0)	30(68.2)	
Size	No important	5(50.0)	14(31.8)	.977	
	Important	7(70.0)	31(70.5)		
Penile type preference	Glans > penis, preference		4(40.0)	19(43.2)	.651
	Glans ≐ penis, preference		6(60.0)	22(50.0)	
	Glans < penis, preference		0	3(6.8)	
Appropriate intercourse time	1~2 minutes		0	0	.772
	3~5 minutes		1(10.0)	1(2.3)	
	5~10 minutes		3(30.0)	16(36.4)	
	10~30 minutes		3(30.0)	17(38.6)	
	≥ 30 minutes		2(20.0)	6(13.6)	
	Does not matter		1(10.0)	4(9.1)	
Sexual function	Total score		15.80±5.55	12.14±3.70	.013*
	Desire		3.30±1.16	2.80±0.82	.112

	Arousal	3.30±1.06	2.50±1.07	.037*
	Lubrication	2.70±1.34	1.77±0.96	.014*
	Orgasm	3.30±1.42	2.57±1.15	.088
	Satisfaction	3.20±1.14	2.50±0.76	.021*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4) 주관적 성경험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는 낮은 자와 비교하여 성교 빈도, 음경 길이, 음경 유형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음경의 둘레, 크기의 선호도, 적절한 성교 시간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두 군 사이에 성기능 비교에서 총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하위항목 비교에서 성욕, 질 윤활작용은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가 낮은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p<.05), 성적 각성, 절정감, 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4].

표 4. 주관적 성경험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Table 4. Comparisons of sexual function and preference according to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Low (n=10)	High (n=9)	p
Sexual experience	Intercourse frequency	No try	1(10.0)	0	.007**
		≤ 2~3 times a month	6(60.0)	0	
		≥ 1 time a week	3(30.0)	9(100)	
Penile Preference	Length	Important	4(40.0)	8(88.9)	.027*
		No important	6(60.0)	1(11.1)	
	Girth	Important	6(60.0)	8(88.9)	.153
		No important	4(40.0)	1(11.1)	
Size	Important	6(60.0)	8(88.9)	.153	
	No important	4(40.0)	1(11.1)		
Penile type preference	Glans > penis, preference		2(20.0)	5(55.6)	.008**
	Glans ≐ penis, preference		8(80.0)	1(11.1)	
	Glans < penis, preference		0	3(33.3)	
Appropriate intercourse time	1~2 minutes		0	0	.251
	3~5 minutes		0	0	
	5~10 minutes		2(20.0)	1(11.1)	
	10~30 minutes		3(30.0)	4(44.4)	
	≥ 30 minutes		2(20.0)	4(44.4)	
	Does not matter		3(30.0)	0	
Sexual function	Total score		14.90±6.47	11.22±2.82	.160
	Desire		3.30±1.16	2.00±0.33	.002**
	Arousal		3.10±1.37	2.44±1.01	.346
	Lubrication		2.60±1.65	1.33±0.50	.036*
	Orgasm		3.10±1.29	2.78±0.97	.483
	Satisfaction		2.80±1.48	2.67±0.87	.766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5) 선호하는 음경 유형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귀두를 선호하는 자는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와 비교하여 주관적 성경험, 음경 둘레, 크기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교 빈도, 음경 길이의 선호도, 적절한 성교 시간은 두 군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 사이에 성기능 비교에서 총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하위 항목 비교에서 절정감은 귀두를 선호하는 자가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 (p<.05), 성욕, 성적 각성, 질 윤활작용, 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5].

표 5. 선호한 음경 유형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Table 5. Comparisons of sexual function and preference according to penile type preference

			Glans > penis (n=23)	Glans = penis (n=28)	p
Sexual experience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Low	2(8.7)	8(28.6)	.048*
		Middle	16(69.9)	19(67.9)	
		High	5(21.7)	1(3.6)	
	Intercourse frequency	No try	0	3(10.7)	.058
≤ 2~3 times a month		8(34.8)	15(53.6)		
Penile Preference	Length	≥ 1 time a week	15(65.2)	10(35.7)	.065
		Important	15(65.2)	11(39.3)	
	No important	8(34.8)	17(60.7)		
	Girth	Important	19(82.6)	14(50.0)	
No important		4(17.4)	14(50.0)		
Appropriate intercourse time	Size	Important	22(95.7)	14(50.0)	<.001***
		No important	1(4.3)	14(50.0)	
		1~2 minutes	0	0	
		3~5 minutes	1(4.3)	1(3.6)	
		5~10 minutes	9(39.1)	9(32.1)	
		10~30 minutes	10(43.5)	10(35.7)	
Sexual function	≥ 30 minutes	3(13.0)	3(10.7)	.336	
	Does not matter	0	5(17.9)		
	Total score	13.35±5.09	12.18±3.73		.349
	Desire	2.78±1.04	3.07±0.77		.260
	Arousal	2.65±1.07	2.54±1.14		.710
	Lubrication	2.22±1.13	1.79±1.07		.167
	Orgasm	3.00±1.17	2.32±1.19		.046**
Satisfaction	2.70±0.97	2.46±0.74	.341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6)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성 선호도, 성기능 비교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정상과 비교하여 결혼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경제적 상태와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정상과 비교하여 성교 빈도, 음경 길이

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음경의 둘레, 크기, 유형의 선호도, 적절한 성교 시간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두 군 사이에 성기능의 총점과 모든 하위항목에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정상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표 6].

표 6.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성 선호도 및 성기능 비교
 Table 6. Comparis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sexual function, preference according to sexual dysfunction

			Normal (n=47)	Dysfunction (n=7)	p
Marital status	Unmarried		29(61.7)	7(100)	.045*
	Married		18(38.3)	0	
Economic status	High or middle		40(85.1)	4(57.1)	.076
	Low		7(14.9)	3(42.9)	
Religion	Yes		15(31.9)	2(28.6)	.859
	No		32(68.1)	5(71.4)	
Sexual experience	Subjective sexual experience	Low	7(14.9)	3(42.9)	.136
		Middle	31(66.0)	4(57.1)	
		High	9(19.1)	0	
	Intercourse frequency	≤ 2~3 times a month	17(36.2)	6(85.7)	.046*
		≥ 1 time a week	27(57.4)	1(14.3)	
Penile Preference	Length	Important	27(57.4)	1(14.3)	.033*
		No important	20(42.6)	6(85.7)	
	Girth	Important	31(66.0)	4(57.1)	.649
		No important	16(34.0)	3(42.9)	
Size	Important	34(72.3)	4(57.1)	.411	
	No important	13(27.7)	3(42.9)		
Penile type preference	Glans > penis, preference		19(40.4)	4(57.1)	.615
	Glans ≐ penis, preference		25(53.2)	3(42.9)	
	Glans < penis, preference		3(6.4)	0	
Appropriate intercourse time	1~2 minutes		0	0	.347
	3~5 minutes		1(2.1)	1(14.3)	
	5~10 minutes		17(36.2)	2(28.6)	
	10~30 minutes		18(38.3)	2(28.6)	
	≥ 30 minutes		6(12.8)	2(28.6)	
	Does not matter		5(10.6)	0	
Sexual function	Total score		11.53±2.70	21.43±2.64	<.001***
	Desire		2.66±0.67	4.43±0.79	<.001***
	Arousal		2.38±0.90	4.43±0.53	<.001***
	Lubrication		1.66±0.76	3.86±1.07	<.001***
	Orgasm		2.43±1.02	4.57±0.79	<.001***
	Satisfaction		2.40±0.65	4.14±0.69	<.001***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V. 고찰

지금까지 여성의 성기능에 대한 연구는 음경의 유형에 따른 여성의 선호도에 대해서 보고한 바 없었다.

또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연구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알려져 있지만 여성 성기능 장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7-9]. 이에 본 저자들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성경험, 선호하는 남성의

음경 유형에 따른 성기능 및 성 선호도에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Franken 등[12]은 여성에게 성생활 만족에 있어서 성기의 크기, 길이, 둘레에 대한 생각을 설문하였는데, 이들의 결과는 길이가 중요하다고 한 자가 21%, 둘레가 33%로 둘레가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 54명에서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자는 각각 51.9%, 64.8%, 70.4%로 크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우리의 결과는 Franken 등[12]의 연구보다 음경 길이와 둘레에서 약 2배 더 높았는데, 이는 한국 여성이 외국여성보다 음경의 크기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Franken 등[12]의 연구가 2002년에 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평균연령이 30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본 연구는 보다 완벽한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명목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다. 모든 응답자 중 귀두가 더 굵은 유형을 선호하는 자의 비율은 42.6%, 귀두와 음경이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의 비율은 51.9%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음경이 더 굵은 유형을 선호하는 자의 비율은 5.6%로 매우 낮았다. 이 결과는 성교시 여성이 귀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결과[표 2], 기혼은 미혼과 비교하여 성교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교 빈도는 '한 달에 2~3회 이하'에서 기혼이 16.7%, 미혼이 55.6%로 미혼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 1회 이상'에서 기혼이 72.2%, 미혼이 41.7%로 기혼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혼과 미혼 사이에 성기능 총점 비교는 기혼이 미혼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 하위항목 비교에서 절정감은 기혼이 미혼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Lee와 Kim [19]은 기혼 여성의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 연구를 통하여 결혼기간에 따른 성기능 장애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여 결혼상태에 따른 성기능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기혼인 자가 미혼인 자보다 성기능이 더 좋았던 이유는 미혼에서 성 파트너와의 관계와 비교하여 기혼이 부부사이에 성생활에 대한 태도와 다양성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결과[표 3],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중간인 자는 낮은 자와 비교하여 주관적 성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상태가 낮은 자는 높은 자와 비교하여 사회 생활과 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게 되며, 이는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진다[26]. 성 기능의 수준은 삶의 질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4]. 즉, 경제적 어려움은 성과 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군 사이에 성기능 비교에서 총 점수는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중간인 자가 낮은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하위항목 비교에서 성적 각성, 질 윤활작용, 성관계 만족도는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중간인 자가 낮은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Park 등[27]은 여성의 삶 만족에 월수입, 교육수준, 나이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9]. 이전의 두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19,27].

세 번째 결과[표 4],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는 낮은 자와 비교하여 성교 빈도, 음경 길이, 음경 유형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교 빈도는 성경험이 높은 자가 '주 1회 이상'이 100%로 모두 현재 활발한 성활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 성경험이 낮은 자는 '주 1회 이상'이 30%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음경의 길이는 성경험이 높은 자에서 88.9%가 성교 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던 반면에 낮은 자는 40%만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음경의 유형은 성경험이 높은 자는 '귀두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 선호', '귀두와 음경이 비슷한 유형을 선호', '음경이 귀두보다 더 굵은 유형을 선호'에서 각각 55.6%, 11.1%, 33.3%를 차지하였던 반면, 성경험이 낮은 자는 20%, 80%, 0%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성경험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음경 유형에 대한 주관적 확실히 드러남을 의미한다. 성경험이 낮은 자는 '귀두와 음경이 비슷한 유형을 선호'에 대부분 포함되었지만, 성경험이 높은 자는 비슷한 유형보다 귀두 또는 음경이 굵은 유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사실 남성의 성기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여성의 질 부피도 모두 다르다[13,14,28]. 그러므로 성경험이 많은 여성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본인의 질 부피에 적합한 남성의 성기에 대해서 잘 인식했을 것이며[28], 이는 선호하는 유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 이유로 생각한다. 오직 길이에서만 성경험이 높은 자가 낮은 자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한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에서 음경의 길이, 둘레, 크기가 중요하다고 한 비율은 각각 51.9%, 64.8%, 70.4%로 크기가 가장 높았지만 성경험이 높은 자에서 길이, 둘레, 크기는 모두 88.9%의 비율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성경험이 많을수록 성기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성기능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항목 비교에서 성욕, 질 율활작용은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가 낮은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성경험이 높을수록 성을 선호하며, 성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29]. 즉, 성경험이 높은 자는 낮은 자보다 남성의 음경 길이를 중요시하고 이는 성욕과 질 율활작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결과[표 5], 귀두를 선호하는 자는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와 비교하여 주관적 성경험, 음경 둘레, 크기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귀두를 선호하는 자는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보다 주관적 성경험이 높으며, 음경의 크기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귀두를 선호하는 자와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 사이에 성기능 총점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항목 비교에서 절정감은 귀두를 선호하는 자가 비슷한 유형을 선호하는 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종합하면, 주관적 성경험이 높은 자는 귀두의 굵기를 중요시 생각하고 이는 음경의 크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음경의 특성은 절정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결과[표 6],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정상과 비교하여 결혼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상태와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Lee와 Kim [19]은 기혼 여성의 성기능장애 관련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나이, 직업, 결혼기간, 교육수준, 종교, 소득수준, 체질량지수, 폐경의 유무, 임신, 출산 횟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유무에 따른 성기능의 차이는 이전 연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상태와 종교에 따른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대상자 수가 본 연구에서는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또한, Lee와 Kim[19]의 연구대상자가 20대에서 50대까지 상대적으로 다양

한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만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제적 상태가 낮은 자의 비율은 성기능이 정상인 자에서 14.9%,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에서 42.9%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가 정상인보다 약 2.8배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정상과 비교하여 성교 빈도, 음경 길이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비교하여 성교 빈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는 이전에 보고하였으나 [29], 음경 길이의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에서 음경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했던 자의 비율은 14.3%로 정상인에서 보고한 57.5%보다 4배 이상 낮았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욕의 저하가 나타난다[16]. 성욕의 저하는 성교시 통증으로 인한 즐거움의 감소, 성생활의 반복적인 실패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17,18]. 성욕의 저하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어린 시절 무의식적 남근 선망에 대한 억제와 관련이 있다[9,10].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성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을 높인다. 즉,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성에 대한 관심과 음경 선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에 응한 여성은 20대와 30대로 한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계는 횡단적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였으므로 분석한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하여 인과성을 확인한다면 더욱 값진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성경험, 선호하는 음경 유형, 성기능 장애 유무에 따른 성 선호도 및 성기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유무에 따른 성교 빈도, 성기능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둘째, 경제적 상태에 따른 주관적 성경험과 성기능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셋째, 주관적 성경험에 따른 성교 빈도, 음경 길이, 음경 유형의 선호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넷째, 음경 유형의 선호도에 따른 주관적 성경험, 음경 둘레, 음경 크기의 선호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마지막으로, 성기능 장애의 상태에 따른 결혼 상태, 성교 빈도, 음경 길이의 선호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으로 성기능 및 성 선호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기능 재활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에 큰 도움을 주신 성기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1] F. Touati and R. Tabish, "U-healthcare system: State-of-the-art review and challenges," *J. of medical systems*, vol. 37, no. 3, 2013, pp. 9940-9949.
- [2] D. E. Geis, "By design: the disaster resistant and quality-of-life community," *Natural Hazards Review*, vol. 1, no. 3, 2000, pp. 151-160.
- [3] C. E. Ferrans and M. J. Powers, "Quality of life inde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 8, no. 1, 1985, pp. 15-24.
- [4] S. Ventegodt, "Sex and the quality of life in Denmark,"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27, no. 3, 1998, pp. 295-307.
- [5] S. Okazaki, "Influences of culture on Asian Americans' sexuality," *J. of sex research*, vol. 39, no. 1, 2002, pp. 34-41.
- [6] D. C. Geary, "Male, female: The evolution of human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5, no. 1, 1998, pp. 331-344.
- [7] S. Freud and P. M. Bonaparte, "The origins of psychoanalysis," London: Imago, 1954.
- [8] S.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e*, vol. 7, no.1, 1905, pp. 125-243.
- [9] S. Freud, "Female sexuality," *The Int. J. of Psycho-analysis*, vol. 13, no. 1, 1932, pp. 273-281.
- [10] C. T. Kilmartin and D. Dervin, "In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electra complex in psychology textbooks," *Teaching of Psychology*, vol. 24, no. 4, 1997, pp. 269-270.
- [11] J. Lever, D. A. Frederick, and L. A. Peplau, "Does size matter? Men's and women's views on penis size across the lifespa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vol. 7, no. 3, 2006, pp. 129-139.
- [12] A. B. Francken, H. B. M. van de Wiel, M. F. van Driel, and W. C. M. Weijmar Schultz, "What importance do women attribute to size of the penis?," *European Urology*, vol. 42, no. 3, 2002, pp. 426 - 431.
- [13] H. Wessells, T. F. Lue, and J. W. McAninch, "Penile length in the flaccid and erect states: guidelines for penile augmentation," *The J. of urology*, vol. 156, no. 3, 1996, pp. 995-997.
- [14] K. Park, S. Kim, H. Lee, E. Lee, C. Lee, S. Kim, and J. Paick, "Penile Nomogram in Korean Males," *The World J. of Men's Health*, vol. 16, no. 2, 1998, pp. 153-158.
- [1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TR: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75, 2000.
- [16] E. O. Laumann, A. Paik, and R. C. Rosen, "Sexual dysfunction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predictors," *Jama*, vol. 281, no. 6, 1999, pp. 537-544.
- [17] K. Min, "Female Sexual Dysfunction," *The World J. of Men's Health*, vol. 19, no. 3, 2001, pp. 239-250.
- [18] I. Sohn, "Female Sexual Dysfunction," *Korean J.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 49 no. 10, 2006, pp. 168-179.
- [19] H. Kim and B. Lee, "Sexual Dysfunction and Related Factors in Married Korean Women,"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19, no. 3, 2010, pp. 329-338.

- [20] J. Lever, D. A. Frederick, and L. A. Peplau, "Does size matter? Men's and women's views on penis size across the lifespa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vol. 7, no. 3, 2006, pp. 121-129.
- [21] G. Kim and J. Kim, "Intelligent Self Learning System for Keyboard Instrument using a Smartphon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9, no. 9, 2014, pp. 999-1004.
- [22] J. Moon and Y. Won, "Effects of orofacial exercises training program using smart phone on swallowing function and tongue strength in acute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1, no. 10, 2016, pp. 995-1002.
- [23] J. Moon and Y. Won, "The Effects of Orofacial Training Video Program using Smart Device on Oral Cavity Structure and Function, Diadochokinetic Rate in Acute Stroke Patients with Dysarthri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4, 2017, pp. 1095-1104.
- [24] Phillips NA. "Female sexual dysfun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 62, no. 1, 2000, pp. 127-136.
- [25] S. Chung,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5 (FSFI-5),"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5.
- [26] E. Kim, K. Oh, and E. Ha,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on depression," *The Korean J. of Woman Psychology*, vol. 4, no. 1, 1999, pp. 1-14.
- [27] H. Park, Y. Koo, and H. Won, "Sexual func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women and their predictors," *J.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3, no. 4, 2004, pp. 505-513.
- [28] V. Braun, and C. Kitzinger, "The perfectible vagina: Size matters," *Culture, Health & Sexuality*, 2001, vol. 3, no. 3, pp. 263-277.
- [29] Y. Lee and Y. Lee, "Differences of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based on the married women's type of orgasm and orgasmic disorder," *The Korean J. of Woman Psychology*, vol. 17, no. 1, 2012, pp. 31-51.

저자 소개



문종훈(Jong-Hoon Moon)

2017년 가천대학교 작업치료학 석사

2017년 현재 인천사랑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 관심분야 : 성 재활



허성진(Sung-Jin Heo)

2017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

※ 관심분야 : 의료기기



나창호(Chang-Ho Na)

2017년 가천대학교 작업치료학 석사

2017년 현재 글로리병원 작업치료실

※ 관심분야 : 성 재활



김성현(Sung-Hyeon Kim)

2017년 가천대학교 보건과학과 물리치료학 석사

2017년 현재 나사렛국제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 관심분야 : 스마트폰 중독



강소라(So-La Kang)

2017년 원광디지털대학교 언어치료학 학사

2017년 현재 인천사랑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 관심분야 : 신경언어장애 재활, 성 재활



김희진(Hee-Jin Kim)

2017년 가천대학교 작업치료학 석사

2017년 글로리병원 작업치료실
※ 관심분야 : 성 재활

